

# 애들과의 쫓김한 정도

이용빈

날씨가 맑은 날, 나는 토요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경찰과 도둑을 했다. 놀이터에서 경찰을 정한 뒤, 경찰은 1분을 섰다.

나는 지하로 가서 숨었다. 경찰을 보자마자 바로 1층을 올라가려 했다. 하지만 나는 도둑한테 잡혀서 놀이터로 갔다.

그때, 도둑이 놀이터로 살금살금 와서 나를 살려주었다. 제한시간이 끝나고 도둑이 이겼다! 역시 경찰과 도둑은 매일매일 해도 재미있다~!



(출처:love pink 무료라이선스)